

현대시조 탄생 어언 100년

7월 21일 '시조의 날' 선포

이은상의 '가고파', 조운의 '구룡폭포', 이병기의 '난초', 시조시인 93인이 가장 좋아하는 현대시조로 뽑은 작품들이다. 고시조로는 황진이의 '동지달 지나기 밤을'이 1위로 꼽혔다. 현대시조 탄생 100주년을 맞아 계간 <나래시조>가 조사한 결과다.

7월 21일, 한국 현대시조 탄생 100주년 기념 '시조의 날' 선포식과 현대시조 100인 시조집 100권 동시 합동 출판기념회가 서울 송현동립에서 열린다. '홍순관과 함께 하는 현대시조 100주년 콘서트' '현대시조 발생지 현화 및 분향' 등도 열릴 이날 행사는 현대시조 탄생 100년 이기도 하고 우리 시조 탄생 1000년을 기념하는 의미도 포함한다.

선포식에 앞서 오전 9시30분부터 한국일보사 12층 대강당에서는 현대시조 100주년 기념 세미나가 열린다. '현대시조의 100년 흐름과 시대문화로서의 역할' '현대시조의 양식적 위상과 쟁점' '시조 100인집의 의의와 시조 발전의 혁신적 제안' 등이 발표된다.

이근배 현대시조 100주년 기념사업회 회장은 "시조의 날 선포식 이후 세계 각국의 시인들을 초청해 세계민족시 세미나를 열어 우리 시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시조시인들의 작품에 그림을 붙여 시화전을 열고, 가곡으로 만들어 공연을 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중견 시조시인 이지엽 교수(경희대)는 "시조의 날" 선

포식과 함께 완간되는 100권의 시조집은 6년 만에 완간하는 것이 만큼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시조의 날'은 어떻게 정해졌을까. 지금부터 100년 전인 1906년 7월 21일, 충청공 민영환의 총질을 그린 '혈죽가'가 대한매일신보에 발표된다. '사동우 대구여사'라는 필명으로 발표된 '혈죽가'는 문헌상으로 가장 앞선 현대시조 작품으로 인정받는다. 현대시조의 첫 작품을 바로 이 '혈죽가'로 인정하고 7월 21일을 시조의 날로 선정하게 된 것이다.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대구여사의 '혈죽가' 이후 수많은 아류작품이 나오면서 현대시조의 틀이 마련됐다. 현대시조(現代時調)는 보통 갑오개혁 이후의 시조를 말한다. 형식적 구속(사수)을 따외어 완화되고, 현대적 정서가 도입되는가 하면 연시조의 형태가 많은 것이 현대시조의 특징이다.

한편 시조의 날 선포식 공동 주최 중 나래시조시인협회는 김현문인협회와 직지사의 후원을 받아 8월 5-6일 직지사 여름 시인학교(054-436-6174)에서 현대시조 탄생 100주년 기념 '白水 정완영 시인 특강' 과 시조 백일장을 마련한다.

현대시조 100주년을 맞아 한국문인협회 시조분과회(회장 한분순)는 6월 초 '현대시조의 쟁점과 전망'에 대해 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8차 교과서에 현대시조를 확대 수록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현대시조의 나아갈 길에 대해 다각적으로 짚었다. 시조분과회는 그동안 현대시조 대중화에 힘써왔다.

강지연 기자 lygang@buddhapia.com



난초 -이병기

한 소미 책을 들고 크오다 싯듯 개니
드는 별 비껴가고 서늘바람 일어오고
난초는 득어 봉오리 바야흐로 벌여라

2
새로 난 난초잎을 바람이 휘젓는다.
같이 잠이나 들어 모르면 모르려니와
느드르 깎미는 양을 차마 어찌 보리라

산듯한 아침 별이 밝듯에 비쳐들고
난초 향기는 물일 듯 밀어오다
감신들 이 곁에 두고 차마 어찌 쓰리라.

현대시조 시인 100인 시조집 100권 동시 발간 합동 출판기념회
다양한 행사 마련... 8월 5일 직지사 시인학교에선 시조 백일장

서포 김만중, 남해 용문사에 서다

15일 높이 2.7m 입석상 제막식... 문태준 시인 문학강연

3대 지장도량의 하나인 남해 용문사에 낭랑하게 시가 울려 퍼진다. 7월 15일 용문사주지성전은 남해문화회 남해역사연구회의 후원을 받아 '21세기 서포, 산사에서 시를 쓰다' 행사를 마련한다.

행사의 1부는 <구운몽>으로 유명한 서포 김만중의 입석상 제막식이 열린다. 남해역사연구회가 제작한 서포 김만중 입석상은 높이 270cm로 용문사 부지 내에 설치된다. 앞으로 용문사 관련 시비를 제작 설치해 용문사를 문학공간으로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2부는 문학행사로 마련된다. 소설사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문태준 시인(불교방송 PD)이 강연한다.

남해는 서포 김만중을 비롯해 약현 남구만, 후송 유의양 등 유배객들의 작품이 탄생했던 곳이다. 서포 김만중의 '남해적사유고목죽립유감우십자시(南海譴舍有古木竹林有感于心作詩)', 약현 남구만의 '영유자이십수(詠柚子二十首)', '입용문사견등반자(入龍門寺見登臺者)', 후송 유의양의 '남해문견록(南海聞見錄)', '용문사기행(龍門寺紀行)' 등은 용문사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다. (055)862-4425

강지연 기자

능인 스님 라이브 공연 7월 16일 종묘 국악정

노래하는 포교사 능인 스님이 7월 16일 오후 2시 서울 종묘 국악정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라이브 공연을 마련한다. 이번 무대에서는 '웃으면서 삽시다' '우리 하나가 되자' '그리운 어머니' 등 창작곡을 노래한다.

꾸준히 소의 이웃을 위해 공연해온 능인 스님이 2006년 하반기 공연 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7월 29일 오전 11시 강화군 야외공연장에서 자비나눔 음악회를, 8월 13일 오후 2시에는 제10회 라이브공연이 서울 종묘 국악정에서 이어진다.

9월 4일-12월 5일 전국을 돌며 교도소 교화 공연에 나선다. 대전 교도소(9월 4일), 청주 교도소(11월 5일), 제주 여자교도소(12월 5일), 광주 교도



능인 스님은 종묘 국악정 공연을 꾸준히 계속하고 있다.

소(10월 13일), 논산 교도소(20일), 충주 교도소(11월 3일), 천안 개방교도소(13일), 천안 교도소(12월 1일), 홍성 교도소(15일) 등의 일정으로 재소자를 위한 공연을 계획 중이다.

능인 스님은 요즘 '심향 마음의 향기' 4집을 준비 중이다. 4집은 발라드 풍의 '향수' '가면 안돼 늘 속으로' 등이 수록된다. 거기에 랩과 발라드, 디스코 풍으로 만든 찬불가도 선보일 예정이다. (02)945-3424 강지연 기자

달빛 여울에 선율을 신고...

여주 고달사지 달오름 음악회 22일 열려

황량한 폐사지가 아름다운 선율과 부드러운 달빛으로 감싸인다.

문화복지연대(상임공동대표 김종엽)가 여주 고달사지에서 달오름음악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10월 양주 회암사지 음악회로 폐사지 음악회의 첫 발을 내디딘 문화복지연대가 폐사지 보존과 지역문화복지 증진을 앞세워 두 번째 폐사지 음악회를 마련한 것이다.

7월 22일 오후 7시부터 여주 고달사 앞마당에서 펼쳐질 달오름음악회는 입장에서부터 퇴장까지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연출을 준비하고 있다.

입장 할 때는 공연장으로 들어가는 중간 중간 흩어진 고달사지의 국보 보물 등 각종 유물들을 설명해준다.

퇴장할 때는 공연의 여운을 즐길 수 있도록 간이 공연장을 설치했다. 움직일 수 있는 길에는 연등이 좌우로 장식돼 고달사지 공연장은 고즈넉한 정원으로 변신한다.

지난해 10월 열린 회암사지 음악회에서는 영상재 일부분을 공연화해서 선보였다.

국악관현악 대중음악 크로스오버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준비해 '폐사지와 국악의 만남'을 시도한다. 가수 임지훈, 한영애, 바리톤 홍일, 국악인 박애리, 오느름 민족음악관현악단, 타악퍼포먼스 아단범서 등이 출연한다. 고달사지와 달오름음악회 준비과정은 한편의 다큐로 제작해 보여준다.

장용철 공동대표는 "폐사지 음악회는 폐사지 보존과 폐사지 보존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두 가지 의미에서 기획된 것"이라며 "지역문화복지에도 역할하고 있음을 이미 첫 번째 회암사지 음악회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회암사지 음악회는 양주시가 특성화를 추진하는 등 인정을 받아 올 가을 한 차례 더 음악회를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폐사지 음악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지연 기자



지난해 처음 열린 폐사지 음악회는 회암사지에서 진행했다.

최고 정신 지도자 고급 과정

참선공지도자

神 임상최면사

神 치유명상가

깨달음(도통)과 神通(신통) · 醫通(의통) · 신병(빙의) · 해리) 기적의 치유법 · 마음조정법 고급 과정모집

● 환혼동(幻魂動) : 조상 영가와 일체객귀신이 魂을 바꾸어 각종 신병(神病)과 실패와 이혼 불상사가 일어난다. 아뢰야식(영혼如來藏)에서 불생불멸의 신 비법 전수. 무량한 功德 비법 전수.

● 神임상최면 : 질병치유를 목적으로 영혼에 의지하여 전생체험, 전생치유법, 내생체험, 내생치유법, 신령의 세계체험, 빙의, 해리치유법, 암질환치유법, 조상영가천도비법 등 기적의 치유법 전수.

● 참선공(參禪空) : 영혼과 육신이 神人合一하여 무한한 대우주의 힘이 풀수와 근육 신경, 세포조직에 들어가 머리부터 손 발 끝까지 강력한 진동으로 스스로 각종 질병을 치유 정화하며 내공 외공을 소유한다.

● 神치유명상 : 관법에 의지하여 영혼의식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고통(불치병)을 벗어나 건강한 육체와 신령한 영혼을 소유한다. 특별한 자비의 손 치유법 개공 및 전수.



現근 신선암 주지 現神 임상최면 협회장 現참 선공 협회장 現神 치유명상 협회장

◆참선공의식 사례

- 48세 여성이 이렇다할 이유 없이 2년 동안 몸이 180°돌아서 한의원 병원, 기공, 국악종기도를 하였으나 돌아 오지 않았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 영혼의식에 의해 단10분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다.
- 60세 중진 스님은 침에서부터 230mmHg의 악성 고혈압 환자였다. 참선공의식 10분 만에 정상 혈압으로 돌아와서 현재는 건강하게 포교 활동을 하신다.
- 28세 미모의 여성이 원인 모를 이유로 7살부터 오른 쪽 다리가 통증이 심하여 20년 동안 걸지 못하였다. 그러나 간단히 참선공의식후 건강하게 통증 없이 잘 걸었다.
- 고등학교 2학년이 재학 중인 학생이 중2때부터 전혀 물도 못 마시고 얼굴에 여드름 피부각질이 만성화 되어 병원 등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깨끗하게 피부각질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윤기 있는 얼굴로 바뀌었다.
- 50세 중진 스님은 영가가 빙의 되어 눈에 보이고 귀에서는 소녀의 말이 들리고 양다리 양손이 항상 불안하게 떨리면서 불안하였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증세가 완쾌되었다.

지도자고급과정

● 입제일 : 2006. 7. 13(목요일) 14:00 - 18:00 (10회 과정) (선착순 예약 10명)

전 수 비 200만원

입금계좌

조흥은행 995-04-648955 예금주: 이영하

조상 천도 해탈 비법	빙의 · 해리 치유 비법
자비손 치유 비법	전생 치유 비법
음성 내공 비법	내생 치유 비법
신선 도인 비법	칠차원 도인 비법

◆ 우울증, 신경불안증, 정신병, 공포증, 기관지 천식,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각종 피부병, 불임증, 불면증, 말더듬, 알콜중독, 무통분만 치유 비법

근 신선암 참선공협회. 神치유명상협회

● 전화 : 02)383-1319 / 011-379-1319
● 주소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5-9 (녹번역 1번)